

장애인체육회 저상버스 절실

최은희 도의원, “도입 늘려나가야”... 문화체육관광국장, “예산부서 설득하겠다”

장애인 선수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체육회 전용 저상버스를 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최은희 의원은 15일 열린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각종 대회와 훈련에 참



최은희 의원

가하는 장애인 선수들이 이동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장애인체육회 전용 저상버스를 구입해 장애인 선수들이 시합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상버스는 몸이 불편한 교통약자를 위한 대표적 이동수단으로 전라북도에서는 도입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도 장애인체육회에는 저상버스가 단 1대도 없어서 훈련과 대회 준비에 전념해야 하는 장애인 선수들은 이동과정에서

큰 불편을 감내하고 있는 현실이다.

최은희 의원은 “전라북도장애인선수들이 세계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으나 이들을 위한 지원 시설은 극히 미약하다”며 “중기 계획을 세워 저상버스 도입 대수를 늘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인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관련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를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적막한 수능시험장 16일 전주시의 한 수능 시험장이 포함 지진 여파로 시험이 연기되며 적막한 모습이다.

이용호 의원, 남원 교통산성 사적지 지정 촉구

김종진 문화재청장 만나 논의... 순창농요 국가무형문화재 승격 재신청 문제도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은 15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김종진 문화재청장과 만나 남원의 교통산성 사적지 지정과 순창농요(금과들소리)의 국가무형문화재 승격 문제를 논의했



이용호 의원

다.

남원 교통산성은 사적지 지정을 신청해 문화재청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순창농요는 2016년 4월 국가무형문화재 승격을 신청했으나 반려되어,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5월 26일 이후 재신청이 가능하다.

이 의원은 “남원 교통산성은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높은 소중한 유산이다. 사적

지 지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고, 아울러 “순창농요의 국가무형문화재 승격신청 반려가 안타깝다. 이후 순창농요의 승격을 재신청하면 이 또한 적극 반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종진 문화재청장은 이 의원의 요청에 “남원 교통산성의 사적지 지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순창농요 역시 재신청 시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김진성 기자

박국정원, 빼돌린 특수활동비 더 있다

검찰, 용처 등 추가 30억 수사 중... 정치권 유입 땀 상당한 파장일 듯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빼돌린 특수활동비 규모가 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지금까지 알려진 40억원에 청와대에 상납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파악됐지만, 나머지 숨겨진 30억원은 사용처가 명확치 않아 검찰이 추적 중이다.

30억원 중 일부가 국회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어 상황에 따라 정치권에 큰 파장이 일 전망이다.

16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국정원은 남재준(73)·이병호(77)·이병기(70) 전 국정원장 재임 기간 중에 집행된 특수활동비 가운데 본래 용도로 사용된 내역을 최근 전수 조사했다.

특수활동비는 보안 유지가 필요한 정보 활동이나 대공 수사 목적으로만 사용되는데, 이런 용도를 벗어나 사용된 실태를 파악했다는 뜻이다.

국정원 자체 조사 결과 이들이 원장으로 재임하던 시절에 불법 사용된 특수활동비는 총 70억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이 중 40억원은 이현수 전 기초실장과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의 손을 거쳐 매달 5,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가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다.

국정원은 그러나 나머지 30억원의 사용처를 알아내는데 실패했다. 특수활동비가 지출된 내역은 있지만, 그 사용처를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게 국정원 자체 조사 결과다.

국정원은 최근 이런 사실을 검찰에 통보해 수

사 의뢰한 상태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국정원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직 국정원장 3인방에게 30억원의 사용처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국정원장들은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30억원의 사용처를 합구하거나 명확한 진술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런 이유로 전직 국정원장들의 구속 수사 필요성을 법원에 소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용처불명’ 30억원 역시 특수활동 업무의 용도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갔거나, 혹은 이들 3인방이 사적으로 사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국정원 직원들이 원장 물려 특수활동비를 빼돌렸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전직 국정원장 3인방을 구속한 뒤 보강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사정기관 관계자는 “국정원 예산 감시가 비교적 느슨한 점을 악용한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해당 자금을 대한 추가 수사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전직 국정원장 3인방에 대한 구속영장 실 집행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오전 10시30분에 남전 원장, 오후 2시에 이병호 전 원장, 오후 3시에는 이병기 전 원장에 대한 심사가 차례대로 열린다.

/뉴스시스

“교육부 지진 신속대응 환영”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16일 문재인 정부, 교육부가 포함에서 발생한 5.4규모 지진 재난 상황 속에서 2018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신속하게 연기 대응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15일 저녁 8시20분경 긴급 브리핑을 통해 2018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일주일 연기, 오는 23일에 시행하기로 발표했다.

도당은 “지진 재난에 안전 우선 대응과 지진 영향권 지역 학생들의 수험 환경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전북도당 역시 도민 모두가 안전하고 평온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진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14개 시군 자치단체와 함께 협력 대처해 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김진성 기자

노후소득보장 강화 협조 요청

김성주, 정세균·홍준표 예망

지난 11월 7일 취임한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취임 1주일째 접어들고 있는 15일 정세균 국회의장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예방했다.

김성주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국민이 주인인 연금”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맨 먼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연금제도는 “서로 엇갈리는 이해당사자들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 국회에서의 입법으로 마무리되는 정치과정을 거쳐야 지속가능한 제도로 정착될 수 있으므로, 2018년 예정된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제도개선 논의 과정에서 국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사회적 합의로 노후소득보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한겨레 주최로 개최된 ‘제8회 아시아 미래 포럼’에도 참석, 리처드 프리먼 하버드대 경제학과 석좌교수, 샌드라 폴라스키 전 ILO 부총재, 정세균 국회의장,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 석학, 정부 관료, 정치 지도자 등과 의견을 교환했다.

민주연구원과 한국조세연구포럼 공동 주최의 ‘조세 개혁,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토론회에도 참석하여 소득재분배를 통한 우리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조세개혁 방안도 경청했다.

/김진성 기자

2017 World Calligraphy Biennale of Jeollabuk-do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예향 전주에서
세계서예인의 축제가 열립니다.

서예의 아름다움을 세계인이 함께 나누는 문자예술의 축제
2017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가
맛과 소리와 서예의 고향 전북에서 열립니다.

2017. 10. 21[±] - 11. 19^日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전북예술회관

제11회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2017 World Calligraphy Biennale of Jeollabuk-do

순수와 융용

2017. 10. 21[±] - 11. 19^日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전북예술회관

■ 행사안내		
서예는 행운을 싣고 - 매주 일요일 16시 추첨	로비	
명사서예전		
생활서예전		갤러리 S
세계한국문화원 서예 수경생전		
서론서예전		
작가와외의 만남 -10.28(토) 호암 윤정용 / 11.11(토) 현봉 최수일		갤러리 O
탁본체험		갤러리 R (로비)
나도 서예가		
서예, 책을 만나다전		
서론서예전		갤러리 R
전, 서각의 어울림전		
경필서예전		갤러리 I
양생서예전		
전북우수활동작가서예전		아외전시
등불서예전		
JS호텔 학술대회 -10월 22일		세미나홀
전북 예술회관 2017년공모전 대상작가 초대전		
기념공모 초대작가전		
2017년공모전		
국립 전주박물관 석전 황옥전		
선인들이 즐겨 쓴 중국 글씨 본		
김암서예관	김암 송성용전	

주최 **전라북도** 주관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ILJIN** **일진그룹**